

★ 중앙교회 구역 모임(17-25)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1. 삶 나누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라

몇 해 전 폭우 때의 일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시장엘 다녀오다가 아파트 앞 맨홀 주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고는 가까이 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된 남자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맨홀 뚜껑이 열려져 있는 것을 모르고 흙탕물을 헤치고 걷다가 그만 맨홀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아이가 살아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려 하다가 놀라서 뛰어오는 같은 구역식구인,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과 아이의 어머니는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동안 주위 사람들은 아이의 시체라도 찾아야 한다면 하수구의 물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줄기를 막고 맨홀을 들여다 보니 맨홀 한 구석에 그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끌어내어 보니 아이는 신기하게도 다친 곳도 없고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후에 아이에게 말을 들어보니 그 아이가 맨홀에 빠졌을 때 겁에 질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는데, 웬 아저씨가

“뱃줄을 잡아라.”

하기에 있는 힘을 다해 그 줄을 잡으려고 하는 중에 물이 흐르는 반대방향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밖에서 줄을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뱃줄을 잡으라고 소리치던 아저씨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어려움에 빠질 때라도 보호해 주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실 것을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말씀나누기

설교 : 성령을 따라 행하라 (본문/ 갈라디아서 5:16-26)

육체를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눔1.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5:16)

나눔2. 육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5:19-21)

나눔3.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까?(5:21)

나눔4.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5:22-23)

3. 은혜나누기

- 1) 나는 어떻게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 2)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 3) 중보기도
 - (1) 대한민국을 이끄는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실현하게 하소서.
 - (2) 교회창립 110주년을 맞이하여 교단과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 (3) 중앙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성령충만을 받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 (4) 파송선교사를 위한 기도: 네팔 문금임 / 네팔코리아국제대학이 정부에 인정받도록 훈련원 본부와 아멘교회 건물의 건축,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중보기도 핫라인 010-2221-3346

4. 사역나누기

- 1) 교회사역안내
- **생명운동 캠페인33-6월 “111” 운동** /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
-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 3) 헌금
- 4) 주기도